“제 연기 보며 슬퍼서 울었어요”

‘사바하’ 나한 역 박정민

“엄마와의 유대감 생각하며 악행 연기 신이 있는지 묻는 박목사의 고민에 공감”

박정민(32)은 매 작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다. 그가 장재현 감독의 새 영화 ‘사바하’로 돌아왔다.

신흥종교단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사바하’에서 미스터리한 정비공 나한 역할을 맡은 박정민. 영화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낮게 깔린 음성 등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는 “나한에 한 번에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가장 먼저 엄마와의 유대감을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저는 가족을 죽여본 적도, 소년원을 가본 적도, 어떤 사람을 위해 악행을 저질러본 적도 없잖아요. 제 안에서 나한과 가장 비슷한 감정을 찾아서 그것을 확장해야 했죠. 나한에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우리 모두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슬프잖아요.”

그는 그 유대감을 통해 “나한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객관적으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나약하고 쓸쓸한 아이죠. 30년 이상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나한의 트라우마는, 엄마예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도 있고 나중에도 밤마다 엄마를 찾으니까요.”

그는 나한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엄마를 찾는 장면에 대해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여러 사건이 얽히고 이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며 나중에는 하나의 서사로 완성되는 범죄 스릴러 성격을 지닌 영화에 대해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재밌게 봤다”고 강조했다.

“그 어떤 캐릭터나 배우도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모두 이야기에 잘 묻어가면서 제 몫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나 후반 작업에서 그 균형이 잘 맞춰지기도 했고요. 사실 제 전작인 ‘변산’ 등과 달리 ‘사바하’에서는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감독님이 그리는 그림에 정확하게 맞춰서 연기해야 하거든요. (배우들이) 그 신의 의도에 맞게 잘 연기를 해낸 것 같아요.”

그는 “이 영화가 잘 됐으면 하는 이유는 감독님 때문이다”며 “감독님이 ‘피를 토하고 뼈를 깎으면서 만들었다’고 하고 울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웃었다.

이정재 등 선배 배우들과의 호흡도 자랑했다.

박정민은 “중학교 때부터 선배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 함께 연기하는 것부터가 꿈 같았다”며 “동료 배우로 생각해주셔서 연기하기에도 편했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고, 뒤섞이기도 한다. 이정재가 연기한 박목사는 끊임없이 ‘과연 신이 있는지’를 묻는다. 박정민은 이 같은 영화의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이는 그가 평소에 했던 고민과도 맞닿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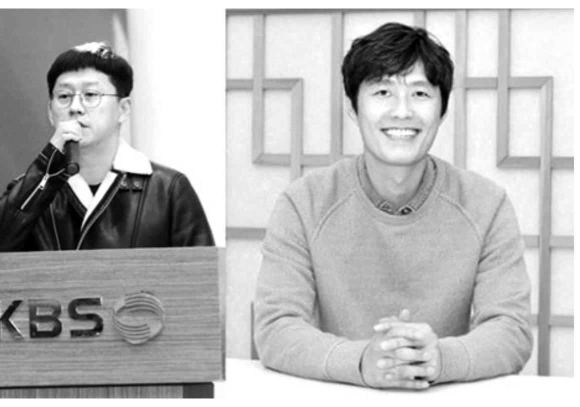
“저는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유신론자예요. 신은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했던 고민이 박목사와 비슷하기도 해요. ‘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회개하기 위해 신을 찾는 사람이 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고민이 신한테 다가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정민은 독립영화계에서 활약하다 ‘동주’(2015)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후 ‘변산’(2018), ‘그것만이 내 세상’(2018)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2018)에서는 안창호 역할로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박정민은 “영화 ‘사냥의 시간’, ‘타짜: 원 아이드 잭’이 연달아 개봉하고 ‘시동’이라는 영화에 곧 들어간다”며 “캐릭터가 다 달라서 저를 아는 분들은 새롭게 느낄 것이고 저를 모르는 분들은 절 못 알아보실 것 같다”고 웃었다. /연합뉴스

“대우보다 자유로운 창작 실험” 예능 PD들 지상파 이탈 러시



정희섭 PD(왼쪽)와 유일용 PD

지상파 젊은 예능 PD들의 타사 이적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게감 있는 중견 PD들의 이탈이 한두 번씩 있었다면, 최근에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던 젊은 PD들의 이동이 급속화해 가뜩이나 여러 기근에 시달리는 지상파의 앞날이 더 어두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두드러졌다.

가장 공격적으로 PD 영입에 공을 들이는 곳은 TV조선과 MBN이다.

TV조선은 ‘동상이몽’ 시리즈를 연출했던 SBS 출신 서혜진 PD를 국장으로 영입해 ‘아내의 맛’, ‘연애의 맛’ 등을 연달아 히트하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은 데 이어 KBS 출신의 정희섭 PD, MBC 출신의 이병혁, 문경태 PD도 데려왔다. TV조선은 아예 “지상파 3사 출신의 예능 PD들을 중심으로 예능 프로그램 자체 제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18일에는 KBS 출신들의 연이은 MBN행 소식이 알려졌다. KBS 예능국장 출신으로 지난 30여년간 ‘전국노래자랑’, ‘TV는 사랑을 싣고’, ‘체험 삶의 현장’, ‘슈퍼선데이’ 등 굵직한 프로그램들을 연출해온 박태호 PD는 MBN 제작본부장을 맡아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20~49세를 위한 프로그램, 젊고 감각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같은 날 KBS 2TV 간판 예능 ‘해피선데이-1박2일’을 지휘해온 유일용 PD도 MBN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 PD는 MBN 자회사인 스페이스 래빗으로 이적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 PD는 “무한한 시공간을 탐험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참신한 콘텐츠를 계발해 MBN과 시청자에게 설렘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같은 젊은 PD들의 연이은 이적은 지상파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지상파 소속’이라는 안정감이 더는 제작자들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상파에서 각종 제약을 받으며 시청률 2%짜리 작품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자유로운 환경에서 5%짜리를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적을 선택한 젊은 PD들은 높은 연봉을 고려해 이동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후일담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탠다.

이 관계자는 “젊은 PD들에게 대우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일 수 있다”며 “지상파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보장’ 되는 직장도 버리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명수, 2년간 난청 어린이 4명 수술비 지원

개그맨 박명수가 또 한 번 난청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사진〉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는 최근 박명수가 5살 난청 어린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언어 재활 치료비 일체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박명수는 사랑의 달팽이를 통해 2017년 6월부터 꾸준히 난청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사랑의 달팽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청 아동의 수술과 언어 재활 등을 지원하는 단체다.

박명수는 tvN ‘짠내투어’, TV조선 ‘아내의 맛’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늬우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경성판타지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왼손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프리즘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박준채〉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거리의 만찬(재)	10 6자회담 1~2부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띠띠뽀 띠띠뽀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황태 청국장찌개와 소고기 무즙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큐 오늘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4: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
17:15 마샤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스페인 소도시 기행 2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라망카〉
21:30 한국기행
〈고택의 겨울 2부
외나무다리 건너, 무섬〉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조식포함 아파트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4:50 한국영화특선 〈이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9일(음 1월 15일 丁亥)

子 36년생 한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48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0년생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전개 될 것이다. 72년생 시작이 좋다고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니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84년생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86

丑 37년생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9년생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하다. 61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73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85년생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4, 84

寅 38년생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느니라. 50년생 적당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본다. 62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74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86년생 실효적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49

卯 39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매어 있다. 51년생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 63년생 기대 이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 75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리라. 87년생 시도한다면 국면전환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12, 94

辰 40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는 시기이다. 52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64년생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76년생 해묵은 습관을 개선한다면 길상이 나타난다. 88년생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6, 68

巳 41년생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53년생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대국을 바라보자. 65년생 불가피한 면모이니 적응해 나가도록하라. 77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 89년생 원칙과 기본을 중시 한다면 안전함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3, 63

午 42년생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54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66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된다. 78년생 길사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90년생 강력한 장해 요인 앞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41, 08

未 43년생 풍성한 성과의 환희가 있다. 55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67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79년생 금석지감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91년생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다. 행운의 숫자 : 62, 70

申 44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도다. 56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68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80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92년생 주의를 다 한다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69, 33

酉 45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57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81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93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0, 54

戌 34년생 명심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46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 58년생 마찰이 예상되니 우회로를 모색하자. 70년생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내색하려 한다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 82년생 삼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천하리라. 행운의 숫자 : 83, 44

亥 35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47년생 전반적인 구도의 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득이 된다. 59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임한다면 늦게나마 대성하리라. 71년생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3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 행운의 숫자 : 26, 1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